

## March 10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 에스겔 37:1-14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복음에 관해 많은 선포와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수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뼈들이 생령이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뼈들이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안에 성령의 숨, 곧 생명이 깃들어 역동적인 생령,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고후 5:17).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주께 위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빌 3:8). 나의 가치판단과 우선순위, 지정의, 은사와 재능, 지식과 정보들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모두 위임할 때, 주님이 나에게서 제할 것은 제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시며, 전혀 새로운 조합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최선과 최상을 이끌어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뿐 아니라 주변 상황과 환경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롬 8:28).

**우리는 성령의 손길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져 갑니다.** 주님은 날마다 흩어진 뼈들을 조합하여 그 하루를 살아 낼 최선의 나로 준비시켜 주십니다. 내가 할 일은 주님께 나의 전 존재를 완전히 내어 드리며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고전 15:31).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 삶에 새 일이 시작됩니다. 나의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원형과 원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나의 가치, 내 능력의 최선과 최상을 가장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

나의 주님이 창조주이십을 믿습니까?

- ❶ 나는 제자리에서 가치와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 ❷ 최선과 최상으로 조합해 가실 성령의 손길을 사모합니까?